

<현대와 과거> 분석을 통해 나타난 리에거의 음악 어법

박진희*·유승지**

■ 국문초록

리에거(Wallingford Riegger, 1885-1961)는 과거와 현대 사이의 간극을 효과적으로 좁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음악을 탐구한 미국의 작곡가이다. 1944년 작곡된 독주용 피아노 작품집 <현대와 과거>(New and Old)는 12개의 소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작품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음악요소가 표제로 제시되고 작품해설도 서문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현대적 음향과 리듬 작곡기법을 소개하고자 한 그의 교수학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작품 분석을 통해 1) 특정 음정, 2) 복조 및 다조성, 3) 무조, 4) 12음 기법 등을 적용해서 조성을 흐트리는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전통적인 박자에서 나타나는 규칙적인 강약의 흐름을 깨기 위해 변박자, 불규칙 박, 헤미올라, 당김음, 크로스 리듬, 대위법, 다양한 리듬 분할 등이 즐겨 사용되었다. 특히 무용음악 작곡을 통해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인 음악을 창작하는데 몰두하였던 리에거는 이 곡에서도 음악적 아이디어들을 매우 간결하고, 경제적으로 풀어내었다. 그 결과 과거에도 즐겨 사용되었던 음악 재료들은 리에거의 독창적인 음악어법의 적용을 통해 현대적 음향과 리듬이 부각되지만 난해하지 않은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20세기 작곡기법을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탐색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학습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월링포드 리에거, <현대와 과거>, 피아노 중급 레퍼토리, 20세기 작곡기법

<목차>

- | | |
|---------------------------------|-----------------------------------|
| I. 들어가면서 | 2. <현대와 과거>에서 발견되는 리에거의 박자와 리듬 실험 |
| II. 리에거의 피아노 작품 개요 | IV. 나가면서 |
| III. <현대와 과거>에서 발견되는 리에거의 음악 어법 | 참고문헌 |
| 1. <현대와 과거>에서 발견되는 리에거의 음향 실험 | |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피아노교수학 박사과정, yaphim2@naver.com

** 한세대학교 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sj_ryu@hanmail.net

1. 들어가면서

리에거(W. Riegger, 1885-1961)는 미국 태생의 작곡가, 첼리스트 및 지휘자이며, 드레이크 대학교(Drake University), 줄리아드 스쿨(The Juilliard School), 이타카 대학교(Ithaca College)에서 화성학, 대위법, 작곡, 첼로, 그리고 지휘법 등을 가르쳤다. 그는 범 미국 작곡가 협회(The Pan American of Composer Association)¹⁾ 소속의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20세기의 ‘새로운 음악(New Music)’을 연구하였는데, 골드만(Goldman, 1956)은 리에거를 “미국의 가장 음악적인 창조자들 중 한 명이다”(p. 11)라고 평가하였다.

리에거는 대중성을 가진 작곡가라기보다는 작곡가들의 작곡가로 불리어진 인물이었다(Spackman, 1982). 코플랜드(A. Copland, 1900-1990)는 “낭만주의를 벗어나는 일이 20세기 초에 활동하던 작곡가들의 최대 과제였다”(Machils, 1988, p. 7에서 재인용)라고 말했는데, 리에거 역시 과거로부터 벗어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며 그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리에거(1939)는 <음악잡지>(Magazine of Art) 에 ‘전통을 거쳐 새로운 옴으로’(To the New through the Old)이라는 글을 두고하였다. 이 글에서 “완벽함에 대한 열정은 나를 모든 음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이게 만들었으며 나는 아직 과거와 현대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지 못했다”(pp. 472-473)는 고민을 토로하였는데, 리에거는 새로운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그만의 독창적인 음악어법을 찾아내기 위한 진지한 성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음악가로서의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작곡활동에 몰두한 리에거는 평생에 걸쳐 약 75여개의 작품을 작곡하였다. 다작을 하는 작곡가는 아니었으나 그의 작품은 관현악곡, 성악곡, 실내악곡, 기악곡 등 여러 장르를 포함한다. 이 중 1944년에 작곡된 <현대와 과거>(New and Old)는 피아노 독주를 위한 작품으로 제목에서 보여주듯 리에거 평생의 관심사였던 ‘과거의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실험이 담겨져 있다. 또한 작곡가의 해설을 서문에 제시하고 있어 그가 적용한 구체적인 작곡기법 및 음악관을 엿볼 수도 있다.

머그라(Magrath, 1995)는 이 작품집을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현대 작품”(p. 478)이라고 하였고, 힌슨(M. Hinson, 2014)은 “현대의 작곡기법을 설명하는 매력적인 담론으로 가득 찬 탁월한 연주회용 작품”(p. 86)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라이트(Wright,

1) 범 미국 작곡가협회(The Pan American of Composer Association)는 1926년에 바레즈(E. Varèse, 1883-1965)에 의해 창립된 단체로 현대 작곡가들의 곡을 소개하고 초연했던 단체이다 (Britannica. Edgard Varèse. Retrieved November 25, 2018, from <http://www.britannica.com>).

1997)도 이 작품을 “리에거의 교수학적인 본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p. 39)이라고 평가하였다. 머그라, 힌슨, 그리고 라이트가 평가한 것과 같이 이 작품은 매우 매력적인 연주회 용 작품이고 각 곡은 특별한 교수학적 목적을 가지고 작곡되어 20세기 작곡기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작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리에거의 <현대와 과거>를 분석함으로써 과거와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20세기 새로운 음악을 받아들인 리에거의 창의적인 음악 어법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분석에는 미국의 부시 앤 헉스(Boosey & Hawkes)에서 1944년에 발행된 악보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II. 리에거의 피아노 작품 개요

가트우드(Gatwood, 1970)는 리에거의 작품 특성에 따라 총 5시기: 학생 시기(1902-1917), 전통 고수의 시기(1918-1925), 전통을 벗어나는 시기(1926-1933), 무용음악의 시기(1930-1939), 절충적인 시기(1939-1961)로 분류한다. 리에거의 작품을 살펴보면 조성 음악에서 출발하여 인상주의적 기법을 거쳐 조성체계를 벗어난 무조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계를 적용한 소리 탐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트우드가 분류한 5시기는 리에거의 소리에 대한 실험 경향을 기준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1기인 학생 시기에는 여러 작곡가: 브람스(B. Brahms, 1833-1897), 드뷔시(C. Debussy, 1862-1918), 울프(H. Wolf, 1860-1903), 바그너(R. Wagner, 1813-1883) 등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작곡하였다. 드레이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기 시작한 2기에는 바로크에서 인상주의에 이르는 과거의 작곡기법을 탐구하였고,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한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3기부터는 불협화음에 기초한 음향 실험에 몰두하면서 그 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4기에 해당하는 무용음악의 시기에는 음악가가 아닌 무용가 그레이엄(M. Graham, 1894-1991)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1927년 리에거는 12음 기법을 적용한 관현악곡 <울림에 대한 연구>(Study in Sonority)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작품에 감명 받은 그레이엄이 리에거에게 무용음악 작곡을 의뢰하게 된다(Goldman, 1950). 이를 계기로 리에거는 움직임 효과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리듬 사용에 대해 몰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20세기 작곡가들이 즐겨 사용한 리듬 작곡기법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이 이루어지게 된다. 5기 절충적 시기에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 소리 탐구에 대한 열정이 응

축되어 그 만의 작곡 체계가 완성되었으며 전체 작품의 2/3에 해당하는 50여 곡이 작곡되었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며 리에거가 작품세계를 완성하는 동안 피아노는 그의 소리 탐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그의 딸 루스 리에거(R. Riegger)는“아버지는 머리에 떠오르는 악상들을 피아노로 연주해주며 어떤 소리가 더 좋은지, 그리고 어떤 작품이 더 좋은지 물어보곤 했다”(Gatwood, 1971, p. 109에서 재인용)고 회고하였는데, 리에거의 모든 작곡의 기초는 피아노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피아노 독주용 작품은 총 6곡인데, 전체 작품 수(75곡)와 비교해 보면 그 비중이 크지 않다. 하지만 거의 모든 작품에 피아노가 등장하고, 오케스트라 곡도 피아노곡으로 편곡해 놓은 것으로 보아 피아노는 그의 창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리에거의 각 시기별 독주용 피아노 작품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리에거의 독주용 피아노 작품

구분	작품명	연도	구성	작품길이 ³⁾
1기	-	-	-	-
2기	-	-	-	-
3기	Blue Voyage Op. 6	1927	단악장	8'17"
	4 Tone Pictures Op. 14	1932	4개의 소품	5'00"
4기	New Dance Op. 18f	1935	단악장	5'00"
5기	New and Old Op. 38	1944	12개의 소품	15'00"
	Petite Etude Op. 62	1956	단악장	1'23"
	Toccata Op. 38a	1957	단악장	57"

3기에 작곡된 <푸른 항해>(Blue Voyage)가 출판된 최초의 피아노 독주곡이며, 인상주의적 기법에 바탕을 두고 작곡되었다. 그다음으로 작곡된 <4개의 음색 그림들>(4 Tone Pictures)은 불협화음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담고 있다. <새로운 춤>(New Dance)은 원래는 현대 무용가 겸 안무가인 험프리(D. Humphrey)의 의뢰를 받아 작곡된 무용공연을

2) <표 1>에서 제시된 피아노 작품 목록에는 습작용 작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작품번호가 있는 출판된 작품만 명시하였다.
 3) 유튜브(www.youtube.com)에 게시된 영상의 연주시간으로 연주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한 관현악곡(Op. 18)이었는데, 후에 피날레(finale) 부분을 독주용 피아노곡(Op. 18f), 두 대의 피아노(Op. 18a), 바이올린과 피아노(Op. 18e), 네 손을 위한 피아노(Op. 18d), 그리고 오케스트라(Op. 18b)를 위한 작품으로 편곡하였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리에거는 악기편성을 구별하기 위해 Op. 18의 작품번호에 a, b, c, d, e, f를 구별해서 삽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현대와 과거>는 5기에 작곡되었는데, 이 시기에 작곡된 <작은 연습곡>(Petite Etude), <토카타>(Toccata) 모두 교육용 작품이다. 12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현대와 과거>는 그의 독주용 피아노 작품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대표적 피아노 작품이다. 특히 마지막 피아노 작품인 <토카타>(Toccata)는 <현대와 과거>(New and Old)의 12번째 곡인 '4도와 5도'(Fourth and Fifth)를 다시 편곡한 작품이어서 <현대와 과거>는 토카타에 와서 완성된 작품으로 종결된 듯하다.

III. <현대와 과거>에서 발견되는 리에거의 음악 어법

리에거(1944)는 <현대와 과거>의 서문에서 그가 구현하고자 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화해와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이 작품집의 제목은 음악의 발전과 전개에서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모더니즘은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 각각의 작품은 어떤 점에서는 의심할 것 없이 현대적이지만 상당히 과거에 의존하고 있다. 나는 선율, 리듬, 화성, 그리고 불협화음에 관한 최근의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대로의 연결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p. 2).

<현대와 과거>에서 과거의 작곡가들이 즐겨 쓰던 음악적 재료들은 리에거의 창의적인 실험에 의해 현대적으로 재탄생되었다. 머그라(1995)는 <현대와 과거>에 수록된 12개 작품의 난이도를 7 혹은 8 레벨로 제시하였는데, 중급 수준의 학생들이 20세기 작곡 기법을 학습하기에 매우 유용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짧게는 16마디에서 길게는 94마디에 이르는 길이로 이루어져 있고, 작품별로 그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표 2>과 같이 요약된다.

<표 2> 리에거의 <현대와 과거> 구성

제목	조성 ⁴⁾	템포	박자	형식
1. 증 3화음 (The Augmented Triad)	중심 음 (B ^b , D)	Rather boisterously ♩=120	변박자	2부분 형식 A (m.1-m.5) B (m.6-m.15) coda (m.16-m.21)
2. 장 2도 (The Major Second)	중심 음 (D ^b)	Moderato (♩=92 or more, but consistently in tempo)	변박자	2부분 형식 A (m.1-m.8) A'(m.9-m.16)
3. 세 개의 온음 (The Tritone)	중심 음 (F#)	Fast, but no at the expense of clarity ♩=100	변박자	2부분 형식 A (m.1-m.8) B (m.9-m.20) coda (m.21-m.29)
4. 12음 (The Twelve Tone)	12음 음계	Moderato ♩=96	홀박자	2부분 형식 A (m.1-m.7) B (m.8-15) coda (m.16-m.21)
5. 이동한 리듬 (Shifted Rhythm)	12음 음계	Allegro moderato ♩=96	변박자	3부분 형식 A (m.1-m.6) B (m.7-m.17) B'(m.18-m.28)
6. 거꾸로 된 12음 (Twelve Upside Down)	12음 음계	Moderato ♩=80	변박자	2부분 형식 A (m.1-m.15) B (m.16-m.27) coda (m.28-m.31)
7. 7 곱하기 7 (Seven Times Seven)	중심 음 C#(D ^b)	Vivo ♩=144, Very slowly ♩=42	변박자	3부분 형식 A (m.1-m.7) B (m.8-m.26) A (m.1-m.7)
8. 반음계 (Chromatics)	중심 음 (E)	Andante ♩=108	홀박자	2부분 형식 A (m.1-m.8) A'(m.9-m.18)
9. 불협화한 대위법 (Dissonant Counterpoint)	무조	Andante ♩=76, Mosso ♩=100	홀박자	3부분 형식 A (m.1-m.17) B (m.18-m.27) C (m.28-m.38)
10. 톤 클러스터 (Tone Clusters)	중심 음 (C)	Briskly ♩=160, Quasi recitativo Moderato ♩=160, Tempo I ♩=128	변박자	3부분 형식 A (m.1-m.43) B (m.44-m.49) A'(m.45-m.87)

4) 리에거의 <현대와 과거>의 해설에 근거하여 조성(tonality)과 중심 음(tonal center)을 제시하였다.

제목	구성4)	템포	박자	형식
11. 다조성 (Polytonality)	복조 (나장조, 내림 마장조)	Allegro ♩=60	홀박자	3부분 형식 A (m.1-m.29) B (m.30-m.48) A'(m. 49-m. 85)
12. 4도와 5도 (Fourths and Fifths)	다장조	Allegro	홀박자	3부분 형식 A (m.1-m.10) B (m.11-m.47) A'(m. 48-m. 66)

각 곡의 표제를 살펴보면 음정, 화음, 음계, 조성, 리듬에 관련된 용어들로 제목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제로 쓰인 중 3화음, 장 2도, 4도, 5도, 반음계 등은 과거의 작곡가들도 흔히 사용하던 소재들이다. 하지만 리에거의 독창적이고 교수학적 의도를 가진 실험에 의해 과거에 흔히 쓰이던 소재들은 무조, 복조, 더 나아가서는 12음 음계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또한 리듬에 관련된 표제가 붙은 5번과 7번 외에도 변박자의 사용, 규칙적인 강박의 흐름을 깨트리고 마디 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리듬 작곡기법이 각 곡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현대적 리듬 기법의 다양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음향’과 ‘리듬’중심으로 리에거가 과거로부터 받은 유산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현대와 과거>에서 발견되는 리에거의 음향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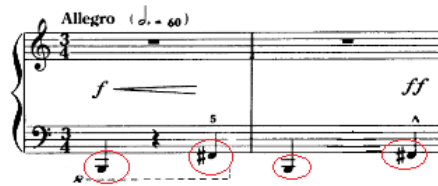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곡의 제목은 리에거가 현대적 음향을 창출하기 위해 어떤 개념을 가져왔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각 작품은 리에거의 표제로 제시된 개념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고 작곡가의 교수학적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리에거는 이러한 개념들을 적용해서 조성을 흐트리는 다양한 실험을 12개의 작품에서 매우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음정의 집중적 사용으로 조성을 흐트리는 실험

리에거는 <현대와 과거> 서문에서 4번, 5번, 6번, 9번을 제외한 8곡에서 해당 곡의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20세기 작곡가들은 장·단조의 독재적인 규칙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통해 조성 개념의 범위를 확대 시켜 나갔는데(Machilis, 1988), 리에거가 <현대와

과거>에서 제시한 조성은 수직적 기능화성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으뜸음과 딸림 음을 강조한 중심 음(tonal center)을 기초로 전개되는 20세기의 확대된 조성 개념에 바탕을 두고 제시된 것이다. <악보 1>은 이렇게 중심 음을 부각시켜 작곡된 좋은 예시이다.

<악보 1>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11번 ‘다조성’, 마디 1-2



그런데 이렇게 중심 음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제목으로 제시된 특정 음정의 집중적 사용 및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동시 사용에 의해 마치 여러 개의 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자아낸다. <악보 2>는 2번‘장 2도’의 일부분이다. 리에거(1944)는 <현대와 과거> 서문에서“마디 3의 ‘솔 ♭’과 ‘라 ♭’은 마디 1의 ‘레 ♭’과 ‘미 ♭’의 딸림음이라고 할 수 있다”(p. 4)라고 말하면서 으뜸음과 딸림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곡 전체에서 장 2도 음정이 검은 건반과 흰 건반에서 교차 되어 사용됨으로써 마치 내림 라장조, 라장조, 내림 마장조, 그리고 마장조가 결합 된 다조성의 음악이 진행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악보 2>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2번 ‘장 2도’, 마디 1-4



3번의 경우에도 리에거(1944)는 “이 곡은 ‘확실히(definitely)’ 올림 바장조이다”(P. 4)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연속된 세 개의 온음으로 이루어진 ‘트라이 톤’이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을 교차하면서 제시되어 마치 올림 바장조와 사장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올림 바단조의 조성이 모호해진다.

<악보 3>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3번 ‘트라이 톤’, 마디 1-2



이렇게 리에거가 제시한 조성은 전통적인 조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중심 음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로 접근하여야 하며, 이 중심 음들조차 리에거의 창의적인 음정 사용에 의해 그 기능이 약화 되어 매우 현대적 음향을 가진 작품으로 탄생한다. <표 4>는 각 곡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 음정과 리에거가 제시한 조성을 비교한 것이다.

<표 4> <현대와 과거>에서 리에거가 제시한 조성

구분	1	2	3	7	8	10	11	12
조성	중심 음 (B ^b , D)	중심 음 (D ^b)	올림 마장조	중심 음 C [#] (D ^b)	중심 음 (E)	중심 음 (C)	나장조, 내림 마장조	다장조
음정	증 3도	장 2도	증 4도 (감 5도)	단 2도	단 2도	톤클러스터	4도	4도, 5도

마지막 곡인 12번의 곡 해설에서 리에거(1944)는 “사실 이 곡은 불협화음으로 이루어진 다장조이다”(p. 8)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리에거가 가지고 있었던 조성 개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만약 리에거가 다장조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곡은 다장조보다는 올림 다장조와 다장조가 혼재하고 있는 복조라고 생각하게 된다<악보 4>.

<악보 4>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12번 ‘4도와 5도’, 마디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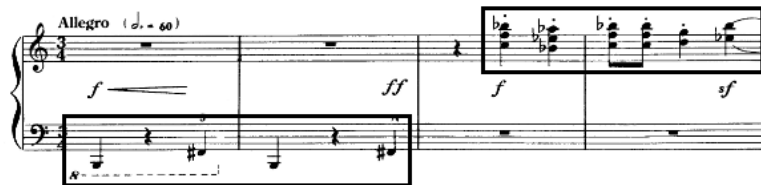


하지만 굳이 리에거(1944)는 ‘불협화음으로 이루어진 다장조’라는 말을 함으로써 다장조의 조성이 불협화음에 의해 왜곡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조성의 틀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증 3화음을 표제로 제시하면서 두 개의 조성이 혼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곡한 1번의 경우에도 “증 5도는 소리 자체만을 들을 때는 단 6도의 소리로 귀에 들린다”(p. 4)라고 하면서 곡 안에서 불협화음정과 협화음정의 양면성이 동시에 발견되도록 시도한 것이 발견된다. 따라서 이렇게 리에거에 의해 조성이 제시된 작품의 경우 그 곡의 기저에 깔린 중심 음과 불협화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진다.

2) 두 개 이상의 조성을 동시에 사용하여 조성을 흐트리는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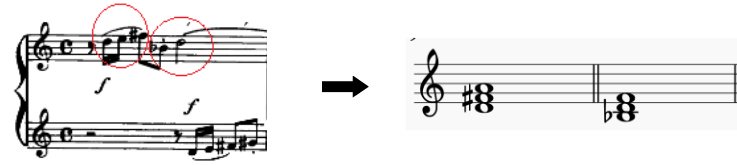
다른 곡들이 특정 음정을 부각시키는 표제를 가졌다면 11번은 ‘다조성’(politonicity)라는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조를 동시에 사용한 곡임을 전면에서 드러낸다 <악보 5>.

<악보 5>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11번 ‘다조성’, 마디 1-4



하지만 이렇게 ‘다조성’으로 표제가 붙지 않은 곡들에서도 앞서 예시를 들은 2번, 3번, 12번에서처럼 특정 음정과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교차 사용에 의해 복조의 음향이 만들어지는 것이 발견된다. 그 외 두 개의 화음이 결합하여 복조의 색채를 띠게 하는 1번, 왼손과 오른손에서 다른 음계를 사용한 8번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리에거는 복조가 가지는 현대적 음향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작곡기법을 구사하였다<악보 6>, <악보 7>.

<악보 6>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1번 ‘증 3화음’, 마디 1



<악보 7>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8번 ‘반음계’, 마디 1-2



3) 무조의 실험

과거의 불협화음정은 협화음으로의 해결을 근본으로 하지만 현대의 불협화음정은 불협화음정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리에거는 음정, 화성, 음계의 실험을 통해 현대적 음향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 불협화음정들의 배열을 통해 조성체계를 무너뜨린 무조음악을 9번에서 제시하고 있다. ‘불협화한 대위법’(dissonant counterpoint)제목 자체에서 이 곡이 두 가지 핵심 요소: 1) 불협화음, 2) 대위법을 바탕으로 작곡된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리에거(1944)는 이 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통적인 대위법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엄격한 것과 자유로운 것이다. 엄격한 대위법에서 협화음은 악센트 위에서 발생하며 불협화음은 경과음으로 사용된다. 반대로 자유 대위법에서는 불협화음이 악센트 위에서 발생한다. 9번의 작곡에 있어 기초가 된 개념은 협화음이 경과음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 협화음이 악센트 위에 제시될 할 수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불협화음으로 진행되어야 한다(pp. 6-7).

<악보 8>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이 곡은 수평적으로, 혹은 수직적으로 불협화음정: 증 4도, 장 7도, 단 2도, 증 5도 등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협화음정은 경과음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러한 음정들이 조합되면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현대적인 음향을 가진 무조성의 음악으로 만들어진다.

<악보 8>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9번 ‘불협화한 대위법’, 마디 5-7



4) 12음 기법의 실험

리에거(1944)는“불협화한 대위법은 거의 12음 체계를 암시하는 것이다”(p. 7)라고 하였는데 4번, 5번, 6번에서 조성체계를 완전히 무너트린 12음 기법을 적용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3곡 모두 <악보 9>에서 제시된 동일한 음렬에 기초하여 작곡되었고, 12음의 배열을 살펴보면 단 2도, 완전 5도, 장 2도, 장 3도, 감 5도, 단 3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작품에서 음렬은 매우 다른 형태로 조합되어 나타나 리에거의 창의적인 접근이 흥미롭게 발견된다.

<악보 9> 4번, 5번, 6번에서 사용된 기본 음렬과 전위된 음렬



4번에서는 기본 음렬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왼손과 오른손에서 <악보 10>, <악보 11>과 같이 제시된 음정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단순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악보 10>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4번 ‘12음’, 마디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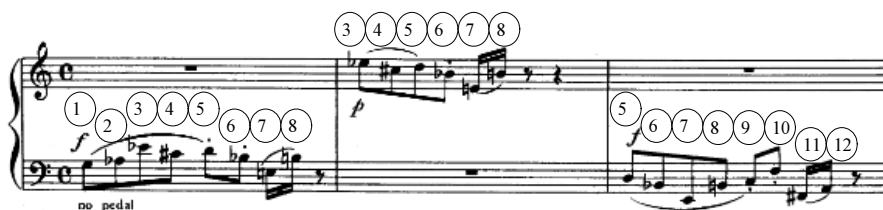


<악보 11>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4번 ‘12음’, 마디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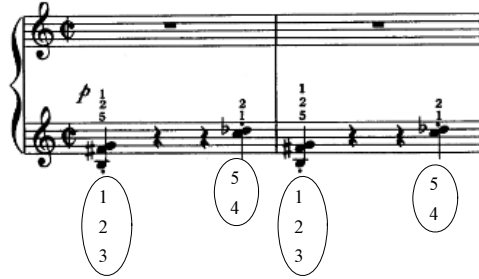
5번에서는 4번과 동일한 음렬을 사용하고 있으나 ‘솔#’을 ‘라 ♭’, ‘레#’을 ‘미 ♭’으로 변형해서 제시하여 같은 음이지만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다. 또한 음렬을 끝까지 다 제시하지 않고 중복적으로 제시하여 마치 새로운 음렬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4번에서 사용되지 않은 전위된 음렬도 사용되었는데 마디 9에서는 전위된 음렬을 역행하여 만들어진 3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기본음렬, 전위 음렬, 역행음렬의 적용을 다 경험할 수 있다.

<악보 12>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5번 ‘이동한 리듬’, 마디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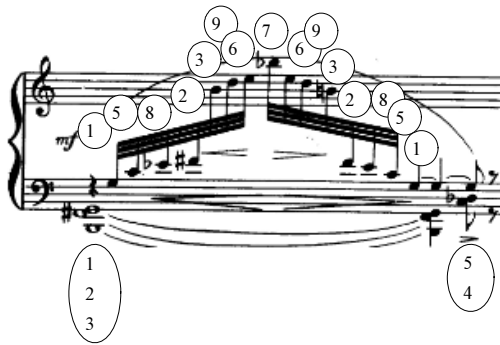


6번에 오면 음렬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는데 이 곡에서는 오직 전위된 음렬만을 사용하고 있고, 전위된 음렬을 그 순서에 맞게 나열하지 않고 <악보 13>과 같이 모음화음으로 이루어진 오스티나토 패턴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마지막 코다 부분에서는 기본 음렬이 보다 <악보 14>와 같이 자유롭게 사용되어 새로운 음렬이 만들어진 것 같은 효과가 만들어지며 이 음렬을 다시 역행 기법을 적용해 제시함으로써 선율이 대칭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악보 13>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6번 ‘거꾸로 된 12음’, 마디 1-2



<악보 14>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6번 ‘거꾸로 된 12음’, 마디 28



2. <현대와 과거>에서 발견되는 리에거의 박자와 리듬 실험

리에거는“무용음악을 작곡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성(simplicity)을 추구하는 것 이었다”(Spackman, 1985, p. 442) 라고 말하였다. 리에거는 현대 무용가 그레이엄을 위한 무용음악을 작곡한 후에는 너무 꾸밈이 많고, 움직임에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영향을 주기에 음악이 너무 복잡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Spackman, 1985). 그 후 리에거는 단순함이 강조된 음악 작곡에 몰두하기 시작하였고, 단순한 리듬 동기를 곡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변형시키는 작곡기법을 즐겨 사용하였다.

<현대와 과거>에서도 짧은 리듬 동기가 다양한 형태로 반복, 변형되며 전개되는 것이 관찰된다. 또한 이러한 리듬 동기들은 불규칙 박, 변박자, 그리고 현대적인 리듬 기법이 적용되어 그 향방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진행으로 전개된다. 또한, 이러한 현대적인 리듬기법들은 특정 음정이나 화성을 강조하여 현대적 음향을 창출하는 리에거의 창의적인 접근에 의해 그 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매력적인 작

품으로 탄생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대적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 리에거가 어떻게 박자와 리듬을 구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다.

1) 규칙적인 강약의 흐름을 흐트리는 박자 실험

<현대와 과거>에서 나타나는 박자의 유형은 크게 3가지: 1) 홑박자(simple meter), 2) 변박자(changing meter), 3) 불규칙 박(unequal beat)으로 나뉜다<표 3>. 홑박자는 총 5곡으로 나타나는데 2/2박자인 4번을 제외하면 모두 박의 단위가 J이다. 변박자는 총 7곡인데 박자의 변화가 가장 심한 7번은 총 11번 박자가 바뀐다. 특히 한 곡 내에서의 박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1) 박의 단위가 같은 변박자, 2) 박의 단위가 바뀌는 변박자, 3) 박의 단위가 바뀌고 불규칙 박까지 포함된 변박자로 구분되어 리에거가 박자를 통해 다양한 실험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 <현대와 과거>에서 나타나는 박자의 유형

박자의 유형	작품번호	박자의 변화	박의 단위
홑박자	4번	2/2	J
	8번	4/4	J
	9번, 11번	3/4	J
	12번	2/4	J
변박자	1번	4/4→2/4→3/4	J
	2번	4/4→2/4→4/4	J
	3번	2/2→3/4→4/4→3/4→2/2→2/4→4/4	J, J
	5번	4/4→3/2→4/4→3/2→4/4	J, J
	6번	2/2→3/2	J
	7번	7/4→3/4→5/8→4/4→3/4→5/8→3/4→2/4→3/4→4/4→3/4→7/4	J, J
	10번	3/4→4/4→5/4→3/4	J
불규칙 박	7번	7/4, 5/8	J, J
	10번	5/4	J

(1) 박의 단위가 같은 변박자

박의 단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박자가 바뀌는 첫 번째 유형은 박자가 가진 세로 줄의 영향력에 따라 강박의 간격이 달라진다. 이러한 변박자는 1번, 2번, 6번, 10번에서 적용되어 나타난다. <악보 15>는 박자의 변화에 따라 강약의 흐름이 변경되고, 동일한 음이지만 마디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강세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박자의 변화는 프레이즈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4박자에서 2박자로 마디의 간격이 짧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프레이즈가 마무리되고, 다시 4박자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프레이즈가 시작된다. 이렇게 박자의 변화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레이즈들은 현대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한다.

<악보 15>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2번 ‘장 2도’, 마디 7-9



(2) 박의 단위가 바뀌는 변박자

<악보 16>은 2/2→3/4→4/4로 박자가 바뀌면서 박의 단위가 ↓에서 ↓↓로 변화되는 예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박의 단위가 변경되는 변박자는 3번, 5번, 7번에서 나타난다. 박의 단위가 같은 (1)번 유형과는 달리 박의 단위가 바뀌는 변박자는 박을 정확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동시에 박자에 따라 변경되는 악센트를 표현하여야 한다. 3번의 마디 10-13은 이러한 박자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인데, 리에거는 연속적으로 사분음표를 제시하지만 박과 박자를 동시에 변화시킴으로써 음악의 규칙적인 흐름을 끊고 ‘멈칫’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악보 16번>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3번 ‘트라이톤’, 마디10-12



(3) 박의 단위가 바뀌고 불규칙 박까지 포함된 변박자

불규칙 박이 포함된 변박자는 2분할박과 3분할박이 결합되어 마디 안에서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불규칙박의 특성 때문에 가장 현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7번과 10번이 이러한 불규칙 박을 포함하고 있는데 박이 ♩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박자가 3/4→4/4→5/4→3/4로 변화는 10번에 비해 박의 단위가 ♩와 ♪로 변화되면서 7/4→3/4→5/8→4/4→3/4→5/8→3/4→2/4→3/4→4/4→3/4→7/4로 박자가 변하는 7번이 연주자에게 훨씬 더 도전이 된다.

10번의 경우 4/4박자, 5/4박자, 3/4박자의 분위기에 맞게 적절한 악센트를 주면서 연주하는 것이 도전과제라면, 7번은 박자의 변화와 강세 변화 외에 불규칙박의 조합에 따른 악센트의 변화도 표현하는 것이 요구된다.

<악보 17>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7번 '칠 곱하기 칠', 마디 20-23



2) 규칙적인 강약의 흐름을 흐트리는 리듬 실험

짧은 리듬 동기를 사용하여 마디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리듬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리에거는 헤미올라(hemiola), 당김음(syncopation), 크로스 리듬(cross-rhythm), 대위적 선율 진행, 리듬의 분할 등의 방법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기법이 현대의 산물은 아니다. 하지만 특정 음정, 화성을 부각시키는 리듬과 그 리듬을 강조하는 셈여림, 아티큘레이션의 적용을 통해 변화된 리듬들은 현대적 분위기를 고조 시킨다.

(1) 헤미올라

9번에서는 <악보 18>에서 관찰되다시피 3박자 곡에서 2박 단위로 악센트가 주어지는 헤미올라가 발생하는데, 무조의 음악 속에서 마디 줄의 강박과 불규칙한 대립각을 세우며 불협화음이 두드러지게 만드는 형태인 헤미올라의 등장은 곡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된다.

<악보 18>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9번 ‘불협화한 대위법’, 마디 15-17



(2) 당김음

8번에서는 붙임줄의 사용에 의해 당김음이 발생하면서 약박에 위치한 음이 아고직 (agogic) 악센트를 가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악보 19>. 붙임줄 외에도 <현대와 과거>에서는 당김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쉼표, 긴 음, 붓점이 포함된 리듬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 관찰된다. 다음의 악보에서 당김음의 리듬은 양 손에서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서는 반음으로 하향하는 반음계적 선율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악보 19>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8번 ‘반음계’, 마디 1-2



10번에서는 액센트를 사용하여 당김음의 효과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당김음은 3개의 4도 음정이 동시에 울리면서 만들어내는 현대적 음향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내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악보 20>.

<악보 20>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10번 ‘톤클러스터’, 마디 11-12



(3) 크로스 리듬

9번의 마디 26-27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에서 2:3의 크로스 리듬이 발생한다. 크로스 리듬의 적용을 통해 왼손과 오른손 간에 상이한 에너지의 흐름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미묘한 뉘앙스의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마디 27에서 나타나는 크로스 리듬은 8분 쉼표와 'sf'는 예측 못한 강박의 출현을 강조하며 마디 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 또한 마디 26보다 양손의 불협화음이 더욱 강조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마디 단위로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크로스 리듬의 사용은 리에거가 현대적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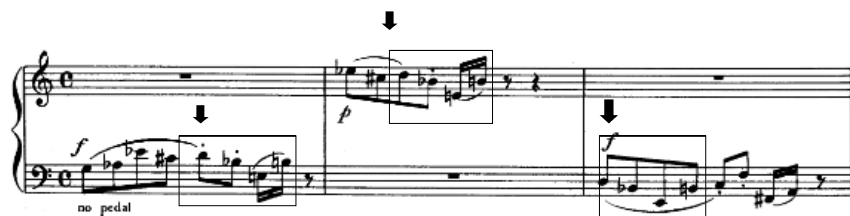
<악보 21>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9번 '불협화한 대위법', 마디 26-27



(4) 대위적 선을 진행

5번에서는 동일한 리듬패턴을 대위적 선율로 진행시켜 규칙적인 악센트의 흐름을 깨는 작곡기법이 적용되었다. 동일한 선율이지만 <악보 21>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선율이 제시된 박의 위치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지며 이를 통해 청자들은 동일한 선율이지만 에너지의 흐름이 다른 역동적인 선율진행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동일한 리듬패턴 안에서 일어나는 불규칙한 악센트와 불규칙한 선율의 흐름은 매우 현대적으로 들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

<악보 22>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5번 '이동한 리듬', 마디 1-3



<악보 23>에서 제시된 1번도 대위적인 선율 진행이 주축을 이루며 악곡이 전개된다. 리에거(1944)는 “이와 같이 같은 리듬 패턴이 위치를 바꾸어 가며 반복하는 것은 과거의 음악에서도 쓰였고 현대적인 음악에서는 전체 곡의 구조적인 기초가 되는 것으로 쓰여졌다”고 하였다(p. 5). 리에거의 말처럼 이렇게 동일한 리듬패턴을 대위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은 과거에도 즐겨 사용된 기법이다. 하지만 리듬 패턴이 대위적으로 사용되는 구조 위에 증 5도의 음정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리에거는 불안정한 분위기를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그 이전 시대의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된다.

<악보 23>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1번 ‘증 3화음’, 마디 6-7



(5) 다양한 리듬 분할

10번에서는 세로줄이 없이 2분할부터 12분할까지 자유로운 리듬의 분할 형태를 보이는 패시지가 제시된다. 이러한 리듬 분할은 예측이 안 되는 음정 간격으로 이루어진 선율진행과 어우러져 매우 불규칙적인 강세를 만들어낸다. 리에거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음의 분할을 통해 박의 규칙적인 흐름을 깨는 기법을 즐겨 사용하였다.

<악보 24> 리에거, <현대와 과거> 중 10번 ‘톤 클러스터’, 마디 44



IV. 나가면서

리에거는 과거와 현대 사이의 간극을 효과적으로 좁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음악을 탐구하였다. 1944년 작곡된 <현대와 과거>에는 과거에 즐겨 사용되던 음악재료들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리에거의 성찰의 결과들이 담겨 있다. 리에거는 매 작품마다 주요하게 다루어진 음악요소를 표제로 제시하고, 작품해설을 서문에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적 음향과 리듬 작곡기법을 소개하고자 한 그의 작곡 의도를 읽을 수 있고, 더불어 이 작품이 철저히 교수학적 의도를 가지고 작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리에거는 전통적인 조성 개념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데, 중심 조, 무조, 복조, 12음 기법 등이 포함된다. 3번과 12번처럼 작곡가가 작품해설에서 특별히 조성을 제시한 곡도 있는데 이러한 곡에서조차 조성을 흐트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해당 조성이 가지는 전통적인 음향을 들을 수 없다. 으뜸음과 딸림음이 강조되는 중심 음을 가지고 있는 곡들(1번, 2번, 7번, 8번, 10번) 역시 표제로 사용된 특정 음정 및 화음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마치 여러 조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된다. 이렇게 조성을 흐트리는 실험을 볼 수 있는 작품 외에 본격적으로 조성을 해체하는 시도가 두드러지는 작품들도 수록되어 있는데, 두 개 이상의 조성을 의도적으로 조합한 복조를 제시한 곡(11번), 불협화음정을 자유롭게 배열한 무조로 이루어진 곡(9번), 조성을 흐트리는 다양한 실험의 종결을 보여주는 12음 기법을 적용한 작품들(4번, 5번, 6번)이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대적 음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실험 외에 전통적인 박자에서 나타나는 규칙적인 강약의 흐름을 깨기 위한 박자와 리듬의 실험도 매우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특히 변박자의 다양한 적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 유형은 3가지: 1) 박의 단위가 같은 변박자가 사용된 곡(1번, 2번, 6번), 2) 박의 단위가 바뀌는 변박자가 사용된 곡(3번, 5번), 3) 박의 단위가 바뀌고 불규칙 박까지 포함된 변박자가 사용된 곡(7번, 10번)으로 나뉜다. 한편, 규칙적인 강약의 흐름을 깨트리는 리듬의 실험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헤미올라, 당김음, 크로스 리듬, 대위법, 다양한 리듬 분할 등이 즐겨 사용되었다.

무용음악 작곡을 통해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인 음악을 창작하는데 몰두하였던 리에거는 <현대와 과거>에서 앞서 서술된 음악적 아이디어들을 매우 간결하고, 경제적으로 풀어내었다. 그 결과 과거에도 즐겨 사용되었던 음악 재료들은 리에거의 독창적인 음악

어법의 적용을 통해 현대적 음향과 리듬이 부각 되지만 난해하지 않은 작품으로 탄생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20세기 작곡기법을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탐색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학습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Gatwood, D. D.(1970). *Wallingford Riegger: A biography and analysis of selected works*. Ed. D. diss. Tennessee: T. C. George Peabody College.
- Goldman, R. F.(1950). The music of Wallingford Riegger. *Music Quarterly*, 36, 39-61.
- _____ (1956). Wallingford Riegger, composer and pedagogue. *The Etude*, 74(8), 11, 42, 53, 63-64.
- Hinson, M. & Roberts, W.(2014). *Guide to the pianist's repertoire*. 4th ed.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Machlis, J.(1988). **현대음악** 上. 이찬해(역). 서울: 수문당.
- Magrath, J.(1995). *The p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Co., Inc.
- Riegger, W.(1939). To the new through the old. *Magazine of Art*, 32(8), 472-473, 490-492.
- _____ (1944). *New and old*. New York, NY: Boosey and Hawkes
- Spackman, S.(1982). *Wallingford Riegger: Two essays in musical biography*. Brooklyn, NY: Brooklyn College Publisher.
- _____ (1985). Wallingford Riegger and modern dance. *Musical Quarterly*, 71(4), 437-467.
- Wright, D.(1997). The new and old, three canons for woodwinds, petite etude, wind quintet by Wallingford Riegger. *The Musical Times*, 138(1850), 39-41.

인터넷 자료

- Youtube. *Wallingford Riegger, New and Old*. 접속일 09.01.2018, <http://www.youtube.com>
- Britannica. Edgard Varese. Retrieved November 25, 2018, from <http://www.britannica.com>.

■ Abstract

Riegger's Musical Syntax Found in the Analysis of *New and Old*

Park, Jinhee·Ryu, Seungji

Wallingford Riegger(1885-1961) is an American composer who explored new music while seeking ways to effectively reconcile between the past and modern times. Written in 1944, the solo piano work *New and Old* consists of 12 pieces. The title of each piece is a musical element, which is presented in the each piece, and a description of the piece is provided, so that we can understand his pedagogical intent to introduce modern sound and rhythm composition techniques. The analysis of the work showed that a variety of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disperse tonality by applying 1) a certain interval, 2) bitonality, polytonality 3) atonality, and 4) twelve- tone technique. In addition, changing meter, unequal beat, hemiola, syncopation, cross-rhythms, counterpoint, and various rhythm divisions were often used to break the regular flow appearing in the traditional meter. In particular, Riegger, who devoted himself to creating simple and dynamic music through composing dance music, solved musical ideas in this work very concisely and economically. As a result, musical materials that have been used in the past have been created as works that highlight modern sounds and rhythms through the application of Riegger's distinctive musical syntax, but are not difficult to understand.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teachers and learners looking for a repertoire in which they can learn 20th century composition techniques in an interesting way.

Keywords: Wallingford Riegger, New and Old, Intermediate piano repertoire, 20th century composition techniques

논문접수: 2018년 11월 30일 수정본접수: 2019년 2월 1일 게재승인: 2019년 2월 15일